

일개 대학 간호대학생의 메타인지 영향요인

최문영¹⁾, 지영주¹⁾
¹⁾경남대학교 간호학과



경남대학교
KYUNGNAM UNIVERSITY

연구의 필요성

간호는 비판적 사고를 기반으로 한 실무적 행동이 중요하므로, 이 두 개념의 연결고리라 할 수 있는 메타인지는 간호사에게 매우 중요한 요인이자 할 수 있다. 메타인지는 간호대학생 시기부터 점차적으로 향상시켜 나가야 하는 역량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교육학에서 여러 학습전략 중 하나로 연구되어왔으며, 간호학에서 메타인지에 관한 연구는 소수에 불과했다.

연구 방법

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셀프리더십, 자기효능감, 대인관계 능력 및 메타인지 정도를 살펴보고 이들 변인 간의 관계를 파악한 후 메타인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관계 조사연구이다.

본 연구의 대상자는 C시에 위치한 일개 대학교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으로 G*power 3.1.9.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위해 유의수준(α) .05, 검정력($1-\beta$) .90, 효과 크기 .15(중간크기)로 산출한 결과 최소 표본 수는 147명이었다. 탈락률 10%를 고려하여 총 162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확인된 설문지 중 응답률이 저조하거나 미회수된 설문지는 없어 총 162부의 설문지가 자료 분석에 사용되었다.

본 연구는 연구 대상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를 위하여 K대학교의 기관윤리위원회 승인(IRB: Institutional Review Board)의 심의(IRB No.: 1040460-A-2020-031)를 통과하였다. 자료수집 기간은 2020년 11월 25일부터 2020년 11월 27일까지였다.

연구 도구는 자기보고식 설문으로 내용은 일반적 특성 8문항, 셀프리더십 30문항, 자기효능감 23문항, 대인관계 능력 18문항, 메타인지 30문항으로 총 109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도구의 개발자 및 변안자에게 도구의 사용을 승인받았다.

자료분석 방법

본 연구의 자료는 SPSS/WIN 18.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.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, 백분율, 평균과 표준편차, 최소값과 최대값을 구하였다. 대상자의 셀프리더십, 자기효능감, 대인관계 능력 및 메타인지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, 최소값과 최대값으로 산출하였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메타인지 차이는 t-test, ANOVA로 분석하였으며, 사후 검정은 Scheffé test로 실시하였고 대상자의 셀프리더십, 자기효능감, 대인관계 능력 및 메타인지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'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. 메타인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Simultaneous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.

연구 결과

표 1.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, 자기효능감, 대인관계 능력, 메타인지 정도 (N=162)

변수	하위변수	Mean±SD	Min-Max	범위
셀프리더십	행동적 전략	3.74±0.42	2.40-5.00	
	인지적 전략	3.88±0.44	2.07-5.00	1-5
자기효능감	일반적 자기효능감	3.60±0.51	2.27-5.00	
	사회적 자기효능감	3.31±0.54	1.52-4.57	1-5
대인관계능력	의사소통	3.29±0.59	1.59-4.71	
	신뢰감	3.37±0.65	1.33-5.00	
	친근감	3.86±0.41	2.78-5.00	
	민감성	3.85±0.62	1.33-5.00	1-5
	개방성	3.72±0.63	1.00-5.00	
	이해성	4.07±0.58	2.33-5.00	
메타인지	인지지식	3.93±0.67	2.00-5.00	
	인지조절	3.99±0.61	2.00-5.00	
	인지조절	3.75±0.45	2.60-5.00	1-5

표 2.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메타인지 차이 (N=162)

변수	구분	메타인지		
		Mean±SD	t/F(p)	Scheffé
성별	남	3.69±0.29	-0.70(.487)	-
	여	3.76±0.47		
학년	1학년	3.85±0.45	1.46(.227)	-
	2학년	3.75±0.50		
	3학년	3.64±0.36		
	4학년	3.77±0.46		
입학 동기	학교 성적	4.00±0.19	0.81(.541)	-
	가족 또는 다른 사람의 권유	3.70±0.46		
	취업이 쉬워서	3.71±0.49		
	전공 관심	3.83±0.41		
	선생님 추천	3.53±0.29		
	기타	3.72±0.47		
	불만족 ^a	3.53±0.38		
전공만족도	보통 ^b	3.63±0.42	6.81(.001)	a,b<c
	만족 ^c	3.86±0.45		
	하 ^a	3.68±0.52		
주관적 학업성적	중 ^b	3.64±0.34	6.15(.003)	b<c
	상 ^c	3.89±0.46		
	하 ^a	3.68±0.52		
최근 1년 이내 봉사활동 경험	있다	3.78±0.39	1.55(.123)	-
없다	3.48±0.55			

표 3.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, 자기효능감, 대인관계 능력 및 메타인지 간의 상관관계 (N=162)

변수	메타인지	셀프리더십	자기효능감	대인관계 능력	상관관계	
					r	(p)
메타인지	1					
셀프리더십	.62***	1				
자기효능감	.36***	.39***	1			
대인관계 능력	.44***	.51***	.37***	1		

Note: *, p<.05; **, p<.01; ***, p<.001

표 4. 간호대학생의 메타인지 영향요인 (N=162)

변수	B	SE	β	t	p	다중공선성	
						공차	VIF
(상수)	.91	.31		2.97	.003		
전공만족도 더미1	-.00	.10	-.04	-0.03	.973	.34	2.98
전공만족도 더미2	-.05	.10	-.06	-0.51	.608	.29	3.45
주관적 학업성적 더미1	-.04	.08	-.04	-0.51	.610	.56	1.79
주관적 학업성적 더미2	.14	.08	-.15	1.81	.072	.53	1.88
셀프리더십	.54	.08	.56	6.46	<.001	.59	1.71
자기효능감	.09	.06	.11	1.52	.130	.72	1.39
대인관계 능력	.14	.08	.12	1.70	.092	.68	1.47

R²=.44, Adj.R²=.41 (F=17.28, p<.001)

Note: 더미변수=전공만족도 더미1(불만족, 만족=0, 보통=1); 전공만족도 더미2(불만족, 보통=0, 만족=1); 주관적 학업성적 더미1(하, 상=0, 중=1); 주관적 학업성적 더미2(하, 중=0, 상=1); VIF=Variance Inflation Factor

결론

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메타인지 정도는 전공만족도(F=6.81, p=.001), 주관적 학업성적 (F=6.15, p=.003)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. 사후검정 결과 전공만족도는 '보통'과 '불만족'보다 '만족'이 유의하게 높았다. 주관적 학업성적은 '상'이 '중'보다 유의하게 높았다. 본 연구 대상자인 간호대학생의 메타인지는 셀프리더십, 자기효능감 및 대인관계 능력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. 본 연구의 회귀분석 결과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만이 메타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으며, 설명력은 41%로 나타났다.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메타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셀프리더십임을 알 수 있었다. 간호교육에서 간호대학생에게 셀프리더십을 고취시키기위해 강의 중심의 일방향적 주입식교육을 벗어나 학습의 주체로서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학습활동에 참여하며 지지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이 제공된다면 간호대학생의 메타인지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.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메타인지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셀프리더십을 키워주는 방법을 통해 메타인지가 함양되기를 기대한다.